

# 看護와 社會意識



金 慕 妊

〈보건학박사, 연세간호대학교수〉

※ 본 내용은 본회 부산지부주최 간호원을 위한 덕성  
강좌와 충남의대간호학과 학생회주최 특별강연회에  
서 부분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원 자>

마치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간호의 기능이며  
이외 다른 기능이 없는 것 처럼 '우리의 활동영  
역을 환자간호에만 국한 해 온 것이 우리의 과거  
이며, 오늘의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창기 간호사업이 행하던 많은 기능이 또는  
간호기능의 하나로 생각했던 부분이 간호의 기  
능이 아니라는 딱지가 붙어가는 간호사업의 증발  
현상이 일어나왔다. 그래서 급기야는 간호는 환  
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극히 제한되고 협소한 경  
지속에서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원 스스로  
가 안일하게 떠었고 이로인해 사회와 일반대중  
도 간호사업을 기관 환자 간호를 떠나 연결할  
수 없도록 된 것 같다.

적어도 간호사업의 발아기였던 Fabiola시대는  
지금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간호는 아니었  
지만 간호는 환자만을 위한 영역을 초월한 감을  
기록에서 느낀다. Oceanus에게 보낸 St. Jerome  
의 편지중 Fabiola의 죽음에 임해 보낸 편지 가  
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Austrian 1957 pp  
53, 54). "Fabiol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채산  
을 병든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다." 분명  
Fabiola는 육체적질고로 앓고 있는 환자간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및 경제적 요인으로 병든 사  
람들의 안녕까지 간호원으로서의 활동영역으로

알고 시행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Fabiola시대 간호영역으로 경제적으로 인으로 건  
강한 삶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은 벌써 오  
래전에 사회사업 또는 정부기관의 시행하는 기  
능으로 간호원의 기능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간호원은 스스로 자신들을 병원이란 기  
관에 매어 놓고 보건간호원을 제외하고는 모  
든 간호원이 몸과 마음에 병든 자를 위한 구체  
적 간호에 급급해왔고 또 간호원의 기능을 한것  
으로 믿고 살아 왔다고 하겠다. 보건간호원은  
못해도 한번 건강을 잃었다 회복하는 환자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 지식의 실천을 기해 필요한  
기술을 시범지드 해야하는 기능을 해야하는 것  
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보건간호원으로서 이 기  
능을 다 하고 있는지 제점토 및 반성이 요청되  
는 상태에 있다.

간호원의 기능을 혹은 간호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다듬는 일은 바람직  
한 일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팽창하는 새  
로운 지식의 바다에서 질서와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능과 사업의 정리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 필요불가결의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가 중요하다.

말일에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변천하는 사회 및 발전하는 학문의 밑물에 밀려 피동적으로 정리 당 할때 간호하는 전문학문이나 직업인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 되기 어려운 것은 피치 못할 결과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체정립도 없이 이렇게 밀려온 것이 우리의 위치이기에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나 우리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우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간호원 하면 의사를 보조하는 의료원의 일원으로 이 병원이나 혹은 일정전술안에서 활동하는 피동적 여인으로 병원과 흰 "Uniform"의 상징적인 존재로써 인식되게 되었고 흰 Uniform을 입고 의사를 보조하면 간호보조원도 간호원이라 일컫게 이르렀다. 법률엔 간호보조원이 간호원이다 하는 항목은 없으나 이러한 사회인식이 대중속에 불문율화하고 "결국에는 간호원을 간호 보조원으로 총괄할 수 있다"를 불문율이 아니라 법으로 놓아놓게 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오늘의 간호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자체 정비와 사회의식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간호란 무엇이며, 간호활동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며 간호원이라는 전문직업인은 이렇다고 간호원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명명 백백할 수 있어야겠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 전통적, 관습, 답습적, 자연발생적 인식과 여인이란 피동적인 동물이라는 타성에 머물러 있는한 오늘과 같은 잘못된 인식이나 무대접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내적정비를 위해 간호학 이론정립에 필요성은 구구히 논하지 않아도 이에관해 발표된 글<sup>1)</sup>이 있으므로 참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호와 사회의식에 대하여 몇자 쓰고저 한다.

사람은 어려서 부터 앓는사람을 돕고 간호할은 거의 본능적인 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사건을 통해 쉽게 익히게 되나 사회환경적 결여로 심신이 음으로 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된다는 진리는 그리 쉽게 타득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마치 아픈사람은 병원에 충실히 찾아와야 하며, 찾아오던 간호원이 온 정성을 다해 치료간호하므로 병마를 쫓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한 다음, 돌려보내고, 이일후부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준 것을 간호원이 믿어 온 것과 같다. 이같은 간호원의 믿음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근거가 결여된 한낱 가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상하에 병원을 떠날때 환자가 회복되었으면 간호원은 간호원으로서 마땅히 할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오류를 범해 온 것이다.

환자간호단이 우리가 종사하는 간호사업의 전부일까? 우리지역사회는 우리가 의료인으로써 할일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겠다.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충심으로 맡은바 의무를 다 했다면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수가 줄었어야 한다. 날로 증가하는 병원의 침상수와 병원수는 맡은바 사업에 실패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것이 아닌가?

간호를 정의하는 전제가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무모하게, 비합리적이 되기 쉬우며 자아방어에 급급해지므로 결국은 더욱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체계적인 내던을 적나나하게 노출시키고 만다. 따라서 간호 또는 간호학을 정의하는 바탕이 혹은 전제가 튼튼하진 바란다.

간호는 병으로 앓는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내건다.

이런 전제 밑에서 환자의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안녕을 도모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 투철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간호원 몇분을 첫째로 소개코저 한다. 이들은 분명 세계를 변모케한 간호원이라 하겠다.

## 1. Fabiola (A.D. 399)

Fabiola 당시의 간호원은 환자간호를 포함한 여러가지 자선사업을 하고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사람이 있다. Fabiola는 실제 간호원으로 일한

1) 김도임 : "간호학 이론정립에 관하여", 대학간호학회지, 제2호, 전국대학간호학회 1973 pp 12-19

첫번째 사람이었으며 로마에다 처음으로 Christian 병원을 세웠다. 세상이란 인류 역사로부터 부자는 빈자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상케인데 Fabiola가 다른 부자와 다른 점은 직접 상처를 봐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또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 위안을 주기위해 마른 입술을 적서주는 등 손수 환자를 돌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A.D. 300년대 로마 귀부인의 유행한 생활방법이었다면 그후 600년 동안 Fabiola의 이름이 살아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Fabiola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사회의 돌연변이이며 많은 진지 또는 같은 귀족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나아가서는 집안에서 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이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양상이 달라져 이를 표현하는 수사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Fabiola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역사만이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사람이 죽으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살아 생전에 천대가 존경을 받게 되기도 한다. 예수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불멸의 존재로 군림하게 되고 비움이 사랑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역사가 우리에게 예증해 주고 있다. Fabiola는 그의 심오한 진실과 성실로서 후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간호원이다.

여성가운데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극적을 위해 굽히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Fabiola도 그러한 사람중에 하나이다. 그는 자기를 존월한 차원높은 세상을 살았으며 목적한 바를 위해 안일할 수 없는 성품을 가졌다. 또한 그가 무엇보다 다른 것은 그의 동료들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의 부류들과는 다른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Fabiola의 이러한 점이 1970년대 아니 1980년대 즉 2000년대의 간호원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Fabiola 당시에는 Social Service, Social Work, Regulation, Nursig, Welfare 등의 용어조차 없었으며 Fabiola는 당면한 생존문제의 해결에만 급

급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산 사람이다. 간호원으로서 자기의 총재산을 기울여 병원을 지은 것은 역사상 Fibiola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Ethel Gordon Fenwick, R.N.

1897년 명문가 출신이 간호계에 투신하던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절에 Ethel은 남들때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혁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다.

꽃으로 둘러 쌓인 Scotland의 별장에서 fencing이나 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귀족의 딸이었으나 그가 어릴때부터 갖고 있던 야심을 이루기 위해 뛰어난 사회가 활동과 비참이 가득한 간호사업이었다. Mrs. Fenwick는 교양이 있고 높고 강한 정신력과 도덕 윤리관을 가진 신체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간호사업을 해야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웅장하고 과감한 간호원을 지적하려면 Mrs. Fenwick를 빼놓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 그는 런던의 아동병원에서 교육을 받은후 곧 유명한 Bartholomews' 병원 간호원장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겸양의 미덕이 필요 없었다.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이 자신에게 갖는 천통같은 신념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도자에게는 겸양의 미덕이 요구되지 않는다.

Mrs. Fenwick는 쉬지않고 끝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이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은 국제간호기구(International Nursing Organization)에 대한 꿈이라 하겠다.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지만 Mrs. Fenwick는 그 꿈을 하나의 완전한 계획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계획을 실현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892년에 Nursing Record 라는 잡지를 시작하여 후에 The British Journal of Nursing으로 발전시켰으며 53년 동안 그 잡지의 편집자를 역임하면서 사회의 부정에 대항하여 과감한 발언을 하였던 간호원이었다.

### 3. Lillian Wald

Lillian Wald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정직하였다. 인자하다든지 잔인하다는 말조차 모르는 착하기 짝이없는 여성이었다.

그는 부자집에서 버릇없이 자라났으며 여동생 Julie와 함께 English, French Boarding, Day School of Young Ladies 등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몸가짐, 음악, 무용 등을 배웠다. Julie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을 때 뉴욕에서 Bellevue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한 젊은 간호원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Lillian의 인생항로가 바뀌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Lillian은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이때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밥을 훔쳐주고, 마음에 걸려 간호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한적도 있었다. Lillian은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갈등과 또 자기의 이상을 제대로 펴기위해 간호학교를 끝내고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졸업은 하지 않았다.

Lillian은 뉴욕의 동부에서 일하면서 가난과 무지, 비위생적인 환경, 빈부의 격차등을 몸소 경험하였으며 비싼 치료비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 거부하는 의사들의 횡포도 목격하였다. 그는 무지가 제일의 적이라고 믿어 그의 집 모든 방, 심지어는 부엌까지 교실로 만들어 이 지역의 부녀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병과 비위생적인 환경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가르쳤다. 강의실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부엌을 치우고, 옷을 빨고 소독하였으며 그야말로 이론과 실습을 결합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1901년 뉴욕시 보건부(Health Department)가 햇빛, 신선한 공기, 청결이 건 강유지에 있어서 세가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발표되었고 방문간호원(Visiting Nurse)을 널리 고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때 Lillian Wald와 Miss Brewster가 뉴욕 전시를 위해 고용된 최초의 보건간호원들이 있다.

Lillian은 보건간호원으로 일하면서 어린이들

을 혹사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미국의 회를 상대로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아동근로보호법이 생기고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기구가 마련된 것이다.

### 4. Dorothea Dix

Dorothea Dix의 어린시절은 Charles Dickens의 소설처럼 쓸쓸하고 모진였으며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보살핌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자라났다. 그는 매우 엄격하였으며 그가 교사로서 일할 때에 그의 학생들에게 늘 완전하기를 요구했다. 그의 남동생에게는 더욱 더 엄격하게 대하였으며 그의 생애를 통하여 부모에게 쓸 수 없는 사랑을 남동생에게 온통 다 쏟았다.

Dorothea Dix는 지도자로서의 소질을 갖고 있었으며 Winston Churchill, Eleanor Roosevelt, 혹은 Martin Luther King 등의 위대한 사람들에 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을 그에게서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자라는 종교적 신념이다. 그는 늘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생각하였다.

Dorothea Dix는 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강철같은 의지의 소유자였으며 이 강한 의지로서 몇백만명의 정신병 환자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놓았다.

그가 아직 20대일때 심한 결핵으로 인해서 그의 교사직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의 생활이 약간 무력해지는데는 했으나 그가 Massachusetts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정신병자들을 만나서부터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한가지 목적을 향하여 매진하였다. 남녀노소가 전혀 격리되지 않고 한데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은 그를 소름끼치게 하였으며 그는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후 2년동안 Dorothea Dix는 Massachusetts주내의 모든 구빈원, 진료소, 감옥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대화하고 치료비를 계산하며 또한 모든 증거자

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감옥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풀어주어 특수병원으로 옮겨주는 일이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입법부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대해 항거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그들의 양심에 인간성(humanity)의 불을 밝혀 주었다. Dorothea Dix의 음성은 은방울을 울렸다. 그는 감옥, 구빈원의 환자들과 얘기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또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면서 20년동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Massachusetts 주의 정신병 환자들의 치료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는 이러한 불행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렇게하여 1845년에 처음으로 New Jersey에 주립 정신병원이 설립되었고, 1841년부터 1850년까지 9년동안 11개주의 입법자들에게 정신병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의 질환이라는 것을 설득시켰다. 그러므로 이세계의 몇백만명의 정신병자들이 연약한 Dorothea Dix의 힘으로 행사함으로써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 5. Margaret Sanger

Margaret Sanger는 간호원으로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가족계획운동의 선구자요,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였다. 그가 뉴욕시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는 동안(1912)에 뉴욕 동남부의 빈민지구에서 가난한 부인들이 영양불량과 병으로 허약한 몸에 계속되는 임신을 함부로 유산시키다가 죽어가는 처참한 상태를 목격하였고 또한 그네들이 피임법을 알코자 애원함을 보고 뜻한 바 있어 미국내 의학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피임법연구를 하였으나 신통한 결과와 뜻한 바 유령으로 건너갔다. 영국, 프랑스에서 많은 견문 특히 프랑스부인들이 그 딸에게 피임법을 가르쳐주는 풍습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여성권신장 및 산아제한에 관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홉가지 죄목으로 체포당하게 됨을 알자 다시 유럽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때에 Marie

Stopes를 위시한 여터 저명한 가족계획지도자들과 만났다.

얼마후 미국에 돌아온 그는 전국 유세 강연에 나서서 추계월을 지나는 동안에 체포당한 일이 많았다. 1916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인 가족계획클리닉을 개설하자 9일만에 Margaret Sanger와 그의 시누이 Ethel Byrne을 위시한 모든 직원이 체포되었다. Ethel은 투옥되자 즉시 단식투쟁에 들어가서 103시간만에 거의 다 죽게되자 석방되었다. Margaret은 보석되어 나오자마자 다시 클리닉을 열어 또 체포되었는데 클리닉환자중에 자기네 빈곤한 상태를 들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판결, 즉 30일간의 징역언도를 받았다. "Birth Control Review"는 옥중에서 집필된 것으로서 1917년에 그 초판이 나왔을때 Margaret은 아직도 옥중중이었다. 그는 1921년에 미국산아제한연맹을 결성하였고 여러차례의 회의를 주최하였다. 1922년부터 일본, 중국등지를 방문하여 산아제한 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한 그는 1925년에 산아제한 국제연맹을 조직하였고 1927년에 Geneva에서 개최된 세계 인구회의에는 많은 인구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의사들을 초청하였다. 이 결과 두개의 단체가 탄생되었는데 그 하나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이고 또 하나는 International Medical Group for the Investigation of Contraception이다. 1948년에 24개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국제 가족계획위원회를 결성할 때 Margaret이 많이 드왔는데 4년후 즉 1952년에 이것이 국제 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으로 되어서 그를 창립자 겸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Margaret Sanger는 그가 83세이던 1966년에 사망할 때까지 일생을 간호원으로서 가족계획사업에 바쳤다.

그가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오늘의 인구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전 세계가 채택하게 되었다. Margaret보다 더 인류를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참의미에서 돕고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째로 간호는 사회양심을 수호하는 학문이며 예술임을 지적하고 싶다.

인간사회가 향상발전 되려던 이에 동력이 되는 모든 기능을 위한 수호자를 갖는다. 사회양심은 사회마다 갖는 집단적인 책임이며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책임이다. 어릴 때 가정교육을 통하여 의외와 불의에 대한 의식이 시작되지만 성인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자라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한다. 발아한대로 성장하지 않는것이 혹은 시작되대로 정체해 있지 않는것이 이것인가보다. 이런 변천의 과정을 통해 사회양심의 수호자가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데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이 수호자는 학자거나 예술가거나 시인들이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양심의 수호자라고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미 확인한 문제를 한발 늦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이란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다. 참을 들어내 놓음으로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서 말이다. 시인이나 작가나 학자나 성직자들을 모아 상대적인 의미에서 참을 보헤 낼 수 있는 이런 가난한 쪽속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들의 생각이 운동하는 증편시세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능력이 부풀 더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다.

시인이면 전부가 악을 규탄하고 참을 구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인은 세기마다 소수가 있을 뿐이다. Victoria 여왕시절 Rudyard Kipling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여왕의 즉위 60년 축제를 기하여 칭송하는 예배찬미가 시를 부탁받고 칭송하기보다는 경고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이 Kipling의 시를 받고 Victoria 여왕은 매증이 아니었다면 Kipling을 탐속에 유계할 수 있을만큼 노했다고 전해 온다. Kipling은 그당시 매증가운데 신애를 받고 있던 시인이었다.

참을 노래하는 것은 Kipling이 처음도 아니며 마지막이 될 수 없다. 사회의식 또는 양심은 색채나, 음악이나, 언어를 통해 호홉하는 예술가

에게 신성한 소재이다. 우리는 흔히 이들로 부터 통찰력을 얻곤한다.

따라서 사회양심 보잘 것 없으나 제한되지 않은 단순성을 지닌 글과 색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주위에 허다하다. 종교적 지도자 Mahatma Ghandi가 있고 남달리 예민한 인도주의 감수성을 지닌 Eleanor Roosevelt, 위대한 정치가, 고명한 학자 그리고 정열적인 선교사, 생각깊은 입법자가 있으나 아무도 우리의 관심을 신랄하게 전쟁의 참혹성이나 과대군국주의의 위험성, 없는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사등에 모우게 하지 못했다.

간호원은 어떠한가? 남을 돕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이 안볼 것을 본 것처럼, 영역과 능력밖의 일처럼 사회의식은 시인에게 맡기고 언제까지나 병원에 온돈할 것인가?

시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의식을 흔히 시구절로 다룰 수 밖에 없는 큰 결함이 있다. 투철한 사회의식 있는 또하나의 Lillian Wald가 우리사회에 있어야 겠고, 또하나의 Dorothea Dix가 필요하며 또하나의 Margaret Sanger가 있어야 겠다. 음운으로 따지는 시구절은 없어도 생활이 시가 되며 없는자와 나약한자의 병마와 불공평을 덜어주는 실질적 역사를 색여 놓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사회양심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시가 사회양심을 호소한다면 이들 연약한 여인들의 눈물과 땀방울은 곧 사회양심의 피와 살이기 때문이다.

간호와 이에 종사하는 우리가 이런 경지에 설 때 비로소 생이라는 거울안에 우뚝서서 별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를 사회는 느낄 것으로 안다.

간호가 병으로 앓는자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Lillian Wald, Dorothea Dix, Margaret Sanger가 믿었다면 사회양심을 행함으로서 수호하는 역사를 이룩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시 간호는 병으로 앓는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한다. 이위에 간호학으로서 학문다운 정립이 있어야 겠고 또 우리의 활동영역이

정의정리 되어야겠다. 이 전제가 있는한 간호원은 “백의”포상으로 안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와 친밀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연방정부의 입법 및 사업정책수립에 간호원이 참여하고 있는 영역을 소개코자 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면 간호는 불가결의 호소이며 이 절대필요의 사업이 많은 대중에게 주어지도록 하자면 이를 국회가 법제화하고 정부가 정책화 하여 수행해야 비로소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따라서 간호원이 이런 입법 및 정부사업정책분야에 참여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호전문분야 뿐만아니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간호원이 되어야겠다.

미국에서 간호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방기구의 영역중 몇가지만 들면 :

1. National Advisory Health Manpower Council
2. Surgeon General's Advisory Committee on Indian Health
3. Emergency Health Preparedness Advisory Committee
4. Joint Committee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5. Joint Committee on Correctional Manpower and Training
6. Health Resources Advisory Committee
7. Defense Advisory Committee on Women in Services
8. Department of Defense Nursing Advisory Committees
9.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ealth Facilities
10. Health Insurance Benefits Advisory Council
11. Nursing Research Study Section
12. National Clearinghouse for Mental Health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13. Mental Health Services Committee

14. Mental Health Training Nursing for committee
  15. National Mental Health Manpower Studies Committee
  16. Hospital Improvement Program Committee
  17. Review Committee on the Nurse Training Act.
    - Construction
    - Nurse-Scientist Graduate Training Committee
    - Project Grants.
    - Traineeships
  18. Community Health Project Review Committee
  19. Neurological and Sensory Disease Project: Review Committee for Vision
  20. Venereal Disease Control Advisory Committee
  21. Occupational Health Advisory Committee
  22. Board of Regent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이다.

사회가 문명하고 기계화하고 도시화함에 따라 파생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도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간호사업에 기대하는 요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간호란 자체사업속에 고립되어 간호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의식을 갖고 상호 유대속에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지닌다. 이 유대가 올바르게 서로 존중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간호라는 사회속에 학분외 타학분의 세계도 알만큼은 알아야 함이 필요로 된다. 간호원으로서 교육자 및 교육학자 간호원으로서 행정자 및 행정학자 간호원으로서 경제인 및 경제학자 간호원으로서 법률가 및 법학자, 간호원으로서 정치가, 및 입법자가 나온음 크게 바람직한 일이다.

간호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폭 넓은 사회의식에서 간호가 부각되고 성장 되어야 하겠다.